



연합노보



알려드립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수당체계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4면

2005

제 호
174

7.29 금

www.newsunion.co.kr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 (110-140) 서울종로구 수송동 85-1 / 전화 398-3620~2 / 팩스 398-3630 / 발행인 정재용 · 편집인 도광환

임금피크제 8월말 노사협의회서 결론

설문조사 결과 토대로 실무협상 재개

노조는 임금피크제 문제와 관련, 오는 8월말 노사협의회를 열어 노사간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뒤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최종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이에 앞서 노조는 7월초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금피크제 관련 설문조사를 토대로 지난 28일 제3차 실무협상을 벌였다.

노조는 앞으로 2~3차례 추가적인 실무협상을 벌여 도입여부 및 도입시기, 퇴직금 중간정산 문제, 정년연장 문제, 인위적인 구조조정 배제 명문화 문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계획이다.

지난 6월2일 이후 50여일만에 속개된 제 3차 실무협상에서 회사측은 "임금피크제가 중장기적으로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꾀할 수 있는 제도"라면서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연합뉴스의 자구노력 일환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것인만큼 조합원

및 직원들의 적극적인 이해를 당부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일정 부분 직원들의 희생을 담보하는 제도인 만큼 금년도 임금인상 약속 등 회사가 최대한 직원들의 입장에서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제3차 실무협상에는 도광환사무국장과 최현주 총무부장, 반종빈 조사부장이 노조측 대표로 참석했으며 회사측에는 권진택 기획부장과 신을호 인사부장이 대표로 참석했다.

이에 앞서 노조는 지난달 말 본사 및 지사의 각 대의원을 통해 임금피크제 문제와 관련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데 이어 7월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는 조사대상 조합원 401명(특파원 및 해외연수자 제외) 가운데 336명이 응

답, 83.8%의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며, 비조합원도 146명이 조사에 응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노조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설문조사 결과는 임금피크제 문제에 관련한 노사합의가 이뤄지는 시점에서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노조는 전국 각 지방지사 순회 간담회와 본사 각부서 조합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조합원들이 제기한 여러 애로사항들을 수렴해 오는 8월말로 예정된 노사협의회에 해결 방안을 제시, 관철시킬 계획이다.

이달의 참글상에 격려상 1편 선정

노조 공정보도위원회(간사 권정상)는 이달의 참글상(6월 송고분)에 사회부 강훈상·조성미 조합원의 <특집- '하월곡동 화재' 3개월>을 격려상으로 선정했다.

한편 7월 송고분 이달의 참글상은 오는 8월8일(월)까지 각 공보위원이나 노조로 제출하면 된다.

노조 '연합뉴스 크레딧' 사용 요청 정위원장, 언론노조 지부위원장 상대로

정재용 위원장은 회사측의 신문·방송사들을 상대로 한 '연합뉴스 크레딧' 명기 촉구 운동을 측면지원하기 위해 최근 언론노조 중앙집행위원회와 신문통신노조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언론노조 각 지부 위원장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정위원장은 언론노조 소속 지부 위원장들에게 "저작권법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그 출처와 성명을 표기하도록 돼 있다"면서 "신문 방송사들이 연합뉴스 기사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연합뉴스' 크레딧을 밝힐 수 있도록 지부 위원장들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앞서 회사는 지난 18일 전국 111개 고객사에 크레딧 명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연합'이 아닌 '연합뉴스'로 명기해 줄 것을 요청한바 있다.

한편 노조도 지난 6월말 발행한 노보를 통해 '연합' 아닌 '연합뉴스' 이름찾기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조 홈페이지 개선작업 완료

노조는 지난 몇 개월에 걸쳐 전산부 및 삼성 SDS의 협조를 받아 홈페이지(www.newsunion.co.kr) 개선작업을 벌인끝에 작업을 마무리, 오는 8월8일 새로운 홈페이지를 선보일 예정이다.

개선된 홈페이지는 푸른색 바탕에 부드러운 이미지 컷을 도입, 신선하고 활기찬 느낌을 주도록 했으며(그림 참조) 기존 콘텐츠의 활성화에도 신경을 썼다.

먼저 게시판의 경우 노조 집행부의 활동을 전달하는 <공지사항>, 조합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실는 <조합원 커뮤니티>, 일반직원들의 목소리를 실는 <사원 커뮤니티>로 세분화해 최근 글과 전체 리스트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으며 여러 현안들에 대해 인터넷 의견조사를 묻는 <조합

POLL)도 마련했다.

특히 익명성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전 사원이 로그인한뒤 글을 남길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실명에 따른 자유토론의 제약을 방지 하기 위해 필요시 언제나 변경 가능한 필명이나 별명으로 글을 남길 수 있도록 했으며 로그인한 개인의 신분확인 과정은 철저히 배제하기로 했다.

또 전 직원들이 회사의 브라우저를 통해 노조 홈페이지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현재보다 훨씬 시각성과 편의성이 돋보이는 위치에 노조 홈페이지를 링크시킬 수 있도록 사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새롭게 선보이는 홈페이지를 통해 더욱 활기찬 조합원 및 직원들의 목소리를 기대한다.



노설

신규 입사자 소속감 갖게 해야

“1주일 정도 단기교육후 각 부서 배정 필요”

참 안타깝고 씁쓸하다. 최근 1~2년간 수많은 신입·경력사원의 입사로 회사는 눈부신 양적 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오히려 사원들 간 의사소통과 융화의 기회는 반비례해 줄어들고 있는 듯하다.

자신이 속해있지 않은 부서의 이름이나 사원들의 이름을 제대로 알려면 사원록을 휴대하고 다녀야 할 판이다. 새로 입사한 사원의 이름은 사내 게시판에서 한번 볼까말까할 뿐이고 얼굴은 매일 발간되는 사보의 한 통이에서나 볼까 말까하다.

사업분야의 확장에 따라 별의별 직종이 다 생겨났다. 영상분야(PD·TD·MD), 광고, 마케팅 분야 등등.

그러나 그들의 일과 역할에 대해 아는 사원은 거의 없다. 알려고 하는 사원들도 없고 설명하려 하는 사원들도 거의 없다. 얼마전 편집국의 모 부서에 일부 경력 기자들이 충원됐다. “다른 부서를 돌면서 얼굴인사라도 하겠지”라고 기대했지만 감감무소식이었다. 이들은 입사한지 며칠되지 않아 배정받은 출입처로 나갔다고 한다.

사정을 자세히 알아보니 오리엔테이션과 통합 브라우저 운용법에 대해 단 하루에 걸쳐 교육받았다고 한다.

반면 공채로 채용된 수습사원들은 입사후 6개월에 걸쳐 치밀한 교육과정을 밟는다. 기자직의 경우 사회부 경찰팀에 배속돼 수습교육을 받은뒤에도 각 부서를 돌

면서 순회교육을 받는다. 6개월간의 교육을 통해 업무와 관련된 기본적인 능력을 배양하는 것은 물론 연합뉴스 사원으로서의 긍지와 사명감을 느끼고 배우게 된다.

그러나 회사는 신입이든 경력이든, 기자직이든 영업직이든 최근 입사하는 사원들에 대해선 무슨 조급증을 갖고 있는 듯하다. 새로 입사한 사원들이 뉴스통신의 임무와 사명, 연합뉴스의 역사와 조직체계, 운영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소속감을 갖고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겠는가. 또 어떻게 연합뉴스의 이름을 달고 양질의 기사를 내보낼 수 있고 어떻게 연합뉴스 이름을 걸고 왕성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경영진이나 회사 간부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새로운 연합식구들이 연합뉴스라는 배에 동승했음을 느끼고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게 만들 수 있다. 예컨대 입사자들에게 1주일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 회사의 각 부서를 돌면서 인사를 하고 회사의 현황과 운영체계 등에 대한 기본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새로운 입사자들은 손쉽게 연합뉴스 조직에 동화되고 회사의 경쟁력 강화에 일조하게 될 것이다. 장래 회사의 가장 큰 경쟁력은 사람이다.

입사 이틀만에 출입처 등으로 사라져 버리는 동료·후배들, 그들을 어디서 만나야 하는지 묻고 싶다.

이달의 조합활동

- 7월1일 : 정위원장이 언론노조 중앙집행위 회의에 참석..
- 7월4일 : 집행부회의를 열어 임금피크제 설문조사안을 최종 점검..
- 7월5일~7일 : 사흘간에 걸쳐 조합원 및 비조합원들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설문조사를 실시.. 임금피크제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80%가 넘는 조합원들이 설문조사에 참여.. 회사측과의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설문조사 결과는 협상이 끝난뒤 밝힐 방침..
- 7월8일 : 신촌의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겸한 집행부회의를 열어.. 노조 홈페이지 개선안을 확정하고 제2차 노사협의회의 일정에 대해서도 논의..
- 7월12일~13일 : 정위원장과 도사무국장이 강원지사를 방문, 춘천의 명물인 닭갈비를 앞에 두고 소주잔을 기울이며 3시간여에 걸쳐 지사 노조원들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



- 7월22일 : 집행부회의를 열어 임금피크제 실무협상 재개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들의 문제점과 대응책들에 대해 논의..
- 7월25일 : 정위원장이 언론노조 신문통신노협 운영위에 참석..
- 7월26일 : 정위원장과 도사무국장이 경기지사를 방문. 이 자리에서 경기지사 조합원들은 지난 4월 조직개편에서 인천지사와 경기북부지국이 승격·신설됐으나 광범위한 수도권 취재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어려움을 토로..



- 7월28일 : 도사무국장 최현주 총무부장, 반종빈 조사부장이 노조측 대표로 참석, 사측과 임금피크제 실무협상을 재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년연장, 퇴직금 정산문제, 인위적인 구조조정 배제 명문화 문제 등에 대해 다양한 경우의 수를 놓고 심도있게 논의..

조합원 단상

“KTX 광고사업 전사적 관심과 지원 필요”

연합뉴스 광고마케팅 사업이 새로운 직접매체의 확보로 큰 전기를 맞고 있다.

회사는 KTX이동방송을 운영함으로써 그동안 직접매체 제한에 따른 수입의 한계를 극복, 대형광고 유치시대를 열었다. 인터넷, 연합르포르, 연합연감 등 소액광고의 수준을 뛰어넘어 KTX이동방송이라는 ‘큰 그릇’을 만들어 낸 것이다. 한마디로 연합뉴스와 KTX의 결합은 바야흐로 ‘멀티미디어 고속열차여행’을 가능케 했다.

더욱이 오는 8월부터 구형 CRT모니터가 17인치 LCD 와이드 모니터로 교체되면 광고유치엔 더욱 큰 변화가 예상되며 현재 운영 중인 객차내의 동영상광고, 프로그램을 연결해 주는 자막광고, 인쇄물 액자광고와 역사 내의 조형물, 캐노피시계 등이 서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인천국제공항철도의 객차 내부와 모든 역사의 광고매체에 대해서도 조만간 영업활동을 본격 전개할 예정이어서 광고와 마케팅에 투입하고 산출하는 회사의 매출 비중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문제는 광고와 마케팅에 대한 전사적인 인식의 변화다. 모든 사원들은 광고와 마케팅 활동에 대해선 ‘남의 일’처럼 외면할게 아니라 회사의 미래와 연결된 전문

적인 분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물론 사원들이 의무적으로 앞장서 광고를 유치해야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치열한 시장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그동안의 관행적인 ‘안방영업’은 지양돼야 한다. 다만 현재 신문·방송·인터넷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보도전쟁’과 마찬가지로 ‘광고전쟁’, ‘마케팅전쟁’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회사 차원의 지원과 사원들의 관심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전략사업본부 마케팅팀은 새로운 기획 아이템과 새로운 영업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인 마케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 전 사원들의 참여와 지속적인 관심이 더해질 때 회사의 발전과 사원들의 복지는 부가적인 ‘선물’이 될 것이다.

취재일선과 영업·기술현장에서 전략사업본부의 활약에 남다른 애정을 보여주고 있는 사원 여러분들에게 지면을 빌어 감사드린다.



박정석 마케팅부



최전선에서

“사회부 법조팀의 비밀, 그 실체를 공개한다”



연합뉴스 사원, 특히 기자 선후배 여러분께 그간 숨겨왔던 비밀을 밝힌다.

조직의 배신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고민했지만 더 이상 진실을 은폐해선 안되겠다는 생각을, 노조위원장의 원고청탁을 받고 굳히게 됐다.

숨겨온 진실이란 다름 아닌, 사회부 법조팀이 모여 있는 서초동이 언론계에서 몇안되는 편한 출입처라는 사실이다. 의아해 하실 분들이 많을 것이다. ‘법조팀’ 이라면 정당팀이나 경찰팀 등과 함께 3D 부서니 기피 부서니 하는 딱지가 붙었던 게 사실이다. 이제 여러분들이 속아온 역사를 밝혀 드린다.

일단 법조팀의 근무 경력을 보자. 올초 영입된 팀장(황대일 차장)과 지난 인사 때 들어온 심규석·안희 기자를 제외하면 대부분 2~3년째 근무하고 있다. 산업부 부동산 담당 윤모 기자는 수습을 떼자마자 법조팀에 들어와 3년 가까이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산업부로 밀려났고 지난해 나간 정모 기자도 ‘홍콩 특파원’이라는 제안을 받고서야 겨우 법조팀 현장반장직을 반납했다.

지금 미국에서 연수중인 전직 법조팀장 김모 선배의 경우 기자생활의 대부분을 서초동에서 보냄으로써 주변 기자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다. 이는 내부 공작에 의해 팀 방출자에게 “다른 부서에 가면 법조팀

은 다시는 가기 싫은 부서라고 말하라”는 지령을 내림으로써 아무나 함부로 법조팀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기들끼리 법조팀 생활을 장기간 유지해온 전략 때문이다. “그간 몇차례나 법조팀 진입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는 현 법조팀장의 증언은 법조팀의 철옹성 같은 진입장벽을 방증한다.

그러면 도대체 법조팀의 취재일정은 어떻게 이런 진입장벽을 설치한 것일까.

아침에 출근하면 각 출입처에서 시내판 신문을 체크하는 데서 일정이 시작된다. 특별히 물먹은 기사가 없으면 법원은 전날 들어온 영장이나 공소장을 체크하고 하루 재판 일정을 훑어본 뒤 법정에 들어가거나 ‘판결문 마와리’를 돌면 된다. 어떤 분들은 ‘판결문을 읽다보면 머리가 아프다’며 고통을 호소하지만 그까짓거 대충 휘휘 읽고 판결문 얻어다가 기사 쓰면 그만이다.

오후에 법정에 들어가면 즐린다. 그때는 자면되고 나중에 타사 동료 선후배 팔 비틀어 ‘풀받으면’ 충분히 기사 쓸 수 있다.

검찰도 과거에는 ‘서울지검’ 하면 쓰레기통을 뒤지느니 ‘뺨치기’를 한다느니 별별 소문이 다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악습은 유물이 됐다. 파쇄기 도입 이후 쓰레기통 취재는 피차 불가능해졌고 ‘뺨치기’의 무용

성은 이제 각사 기자들이 공히 인식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주목을 끄는 사건들이 이쪽으로 몰려오는 게 사실이지만 다 일장춘몽이다. 물먹어도 사건은 끝나고 특종을 해도 사건은 끝난다.

뭘니뭘니해도 법조팀의 하이라이트는 팀장이다. 하루 종일 기사 한줄 안쓰고 취재지시만 한다. 그리고도 이 동네 유력인사들과 만나 어깨를 나란히 한다. 이렇게 편한 취재를 하면서 출입 기자들은 판사·검사·변호사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 언제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험한 세상에서 법조인과 인맥을 쌓는다는 건 정말 어디가도 얻을 수 없는 혜택이다.

회사내 최고 수준의 수당을 받아 챙기는 곳이 법조팀이라는 사실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의심이 나시면 한번 다음 인사 때 법조팀에 지원해보시라. 쉽게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아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진실을 폭로했는데도 법조팀에 지원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둘 중 하나다. 바보거나 더 편한 부서에 있거나. ■



김상희 사회부



여행스케치

자연의 소리만 가득한 청정지역 - 우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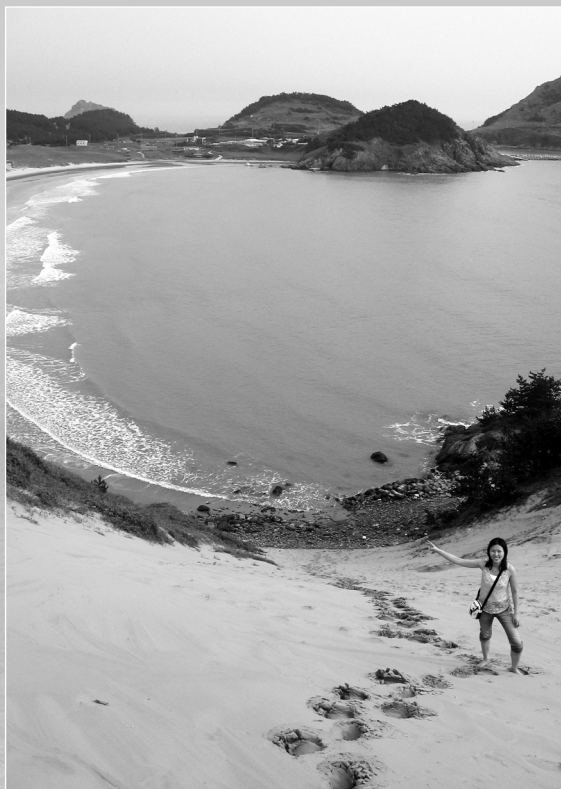
목포 제2여객터미널에서 1일 1회 운영되는 페리 호로 3시간 30분 조금 넘게 걸려 도착한 우이도. 우이도는 전라남도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하단 끝자락에 위치한 3개의 유인도와 34개의 무인도로 이뤄진 군도다.

1,865ha 크기인 이 섬의 인구라고는 진리, 성촌, 돈목 세 마을을 모두 합쳐 200명 남짓... 그것도 마을은 섬 중앙에 야생산 상상봉으로 분리되어 작은 오솔길들로 이어져 있지만 그것도 풀과 나무들로 끊어지기 일쑤, 실제로 배를 이용하지 않으면 마을간 왕래가 거의 불가능하다.

우이도의 명소하면 단연 모래산을 들 수 있다. 돈목해수욕장에서 바로 이어지는 모래산은 비, 바람에 의해 매일같이 그 형태가 변화하는 자연미를 연출한다. 높이가 80m정도 되는 모래산은 비닐 포대로 모래썰매를 즐겨도 좋을 정도이니 그 경사와 모래의 고운정도가 상상이 되시리라.

참, 섬 주위 해안으로 펼쳐진 기암절벽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절경으로 현지에서 배를 빌려 유람할 수도 있다.

우이도는 그야말로 자연인이 되기에 딱!인 곳이다. 온 종일 쫓겨가는 울리는 것은 새와 파도, 나무를 흔드는 바람소리 뿐이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자동차가 없으니 그야말로 소음 청정지역이라 할 수 있겠다. 전기가 들어온지도 채 10년이 안되었다고하니



오지는 오지인 모양이다.

시골내음 물씬 풍기는 민박을 운영하는 마음씨 좋은 이준마는 몸에 기름기 하나 찾아볼 수 없는 체형으로 23살때 지금의 아저씨에게 시집을 와서 3남3녀의 자녀를 낳아 현재는 모두 출가시키고 남편과

두분만 섬에 남아 노년을 보내고 있다며 수줍게 얼굴을 붉히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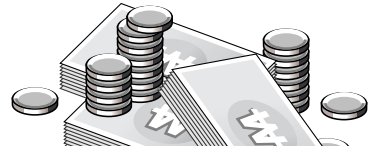
핸드폰도 선착장에 나와서 여기저기 전파를 찾아야만 간신히 신호 하나정도 잡히는 우이도는 차소리와 같은 도시음은 들을래야 들을 수도 없는 새소리와 바다내음으로 가득찬 섬이었다.

좋은 공기와 음식을 섭취하는 것 만큼 마음의 평안을 추구할 수 있는 곳, 해수욕과 등산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 날 찾는 이 없고 그 시간 그 공간에 오직 나만 존재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찾으신다면 우이도를 추천하고 싶다. ♣



김토일 그래픽뉴스팀

복잡한 수당, 알고 받자 - 일부 수당 문제점 개선돼야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기본급, 상여금, 여러 가지 수당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월급명세서를 들춰 보자. 일반 호봉사원의 경우 6개의 수당 항목이 적혀 있다. 국장·부장·보직팀장 등을 대상으로 한 <직책수당>, 부서별·직종별·직급별로 차등 지급되는 <직무수당>, 근속연수 5년마다 구분해 지급되는 <근속수당>, 배우자와 직계비속 인원에 따라 지급되는 <가족수당>, 그리고 교통비 성격의 <통근수당>, 월급 지급일에 별도 지급되는 <급식수당>이 있다.

연봉사원의 경우 이들 수당과 상여금이 모두 합쳐 월정액으로 지급되고 있다.

매월 지급되는 이들 수당 이외에 매년 1월에는 휴가 사용일수에 따라 개별적으로 산정되는 <연차수당>이 지급된다.

한편 산정절차가 가장 복잡한 수당은 흔히 O.T라고 부르는 <시간외 근로수당>이다. 말 그대로 기본 업무 시간 이외에 투입된 노동시간을 개별적으로 계산해 지급하는 수당으로 상시연장근로수당, 수시연장근로수당, 공휴근로수당 등이 있다.

<상시연장근로수당>이란 사회부 경찰팀과 각 지사 경찰팀, 정치부 정당팀 등 상시적으로 시간외 업무가

발생하는 직원들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며, <수시연장근로수당>이란 오후 7시 이후부터 발생하는 '구체적인 업무'의 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이다.

오전 7시 이전의 조출근무에 대해선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조출근무가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부서의 경우 관례상 수시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수시연장근로수당은 직급별, 근무시간별로 금액이 차별적으로 책정돼 있으며 시간별로는 오후 10시를 기준으로 구분돼 적용된다.

<공휴근로수당>은 일요일(토요일 포함), 공휴일 근무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으로 6급 이상 사원의 경우 수당액수가 동일하다. 즉 6시간 이상 근무자의 경우 7만5천원이 지급되고 9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만5천원 이외에 수시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된다.

토·일요일근무에 대한 대휴 사용시엔 3만원이 지급되지만 공휴일 근무에 대해선 대휴를 인정하지 않고 수당만 지급한다. 또 토·일요일 근무수당은 수시로 지급되지만 공휴일 근무수당은 매달 10일 시간외 근로수당에 포함돼 지급된다.

다른 언론사들도 최근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공휴근로수당에 대한 다양한 제도개선에 나섰다. 조선일

보의 경우 11만8천5백원, 중앙일보는 직급별로 구분해 최저 7만4천원·최고 12만7천원, 서울신문 4만원, 경향신문 6만원 등을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수당 이외 <철야당직비>가 있다. 평일 기본업무 철야당직의 경우 1만5천이 지급되고 평일 기본근무후 철야당직의 경우에는 4만원이 지급되며 철야당직후 익일 계속 근무시에는 1만원에서 2만원까지 금액이 가산된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임금에는 크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있다.

<통상임금>이란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차수당, 공휴수당 등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개념으로 기본급에 직책수당과 직무수당을 더해 월평균 혹은 일평균으로 계산한 임금이다. 참고로 중앙일보의 경우 공휴근로수당이 다양한 단계로 구분된 것은 '공휴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라는 규정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평균임금>이란 퇴직금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개념으로 기본급과 모든 수당을 더한 퇴직직전 3개월 평균급료, 퇴직 직전 1년간 평균상여금, 퇴직직전 연도의 연차수당을 모두 더해 계산한 것이다.

현장, 현장 “사건 몰고온 노조, 정말 미워!”

‘따리리 따리 틱~’ 사무실 팩스를 통해 옛 안기부 특수도청조직 ‘미림팀’ 팀장 공운영씨의 자술서가 사무실에 들어온 시간은 26일 오후 5시 30분께. 신영근 선배가 급하게 자술서 사진을 찍고 나와 김광호 선배는 부지런히 노트북에 자술서를 옮긴다. 손가락에 쥐나도록 자판을 두드리는데 두명의 남자가 들어 온다. 노조위원장 정재용 선배와 사무국장 도광환 선배. 오늘이 지방 순회하는 노조 선배들과 만나기로 한 바로 그날이다.

반가운 마음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한다. 그리고는 잼싸게 돌아와 자판을 두드린다. 경기지사 사무실에 흐르는 싸늘한 긴장감을 느꼈는지 정 선배가 “무슨 사건이 터졌나?”라며 컴퓨터 모니터를 켜다. 일단 급한 불을 끄고 몇몇 기사가 출고되고 나서야 노조 선배들과 소주잔잔 하러 나갈 준비를 한다.

그런데 “뭘야, 자해를 했어?” 갑자기 지사장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공씨가 사는 분당 집에서 며칠째 뺨치기를 하고 있는 막내 차대운이가 <공씨, 자택서 자해> (1보) 기사를 보내온 것이다. 일이 커졌다. 북쪽에서는 JSA병사 실종사건이 나고 남쪽에선 공씨가 자해하고, 경기지사가 난리도 아니다.

사무실에 들어와 있던 신기원과 신영근 선배가 급하게 현장으로 나간다. 지사장과 사건캡인 광호선배의 움직임이 예민해진다. 계속해서 울려대는 전화벨 소리가 다급하다. 탁자에서 TV를 보고 있던 정선배와 도선배도 벌떡 일어 선다. “사진도 찍었어? 구조대에 실려가는 것 말이지... 좋았어”.

공씨가 자해후 구조대에 실려 나가는 장면을 차대운이가 찍었다. 그것도 디카로 여러장을 찍었는데 서너컷은 꽤 좋다고 한다. ‘이거 특종인데...’ 사무실에 있는 각자의 눈빛에서 우리가 한걸 올렸다는 환희

가 배어난다. ‘뺨치기’의 독특한 성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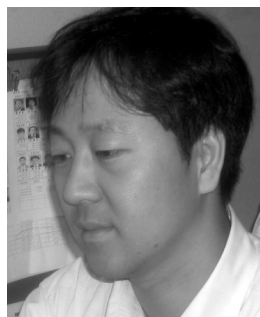
“경기지사가 무척 바쁜 날 우리가 왔나 보네~”. 정신없이 일하는 지사 후배들을 보며 괜히 미안한 듯 정 선배가 한마디 던진다. “웬만큼 처리됐으니까 필수인원만 남고 나머진 나가서 식사해”. “사진 좀 보고 갈게요”. 모두 나가기 싫어한다. “아냐, 이따 와서 봐, 얼른 나가”. 지사장의 협박(?)에 김종식 부장 이하 일부 지사원이 두 노조 선배와 회사 뒤편 삼겹살집에서 술잔을 부딪친다.

서먹서먹했던 분위기는 주고받는 술잔으로 업(up)시키고 회사 돌아가는 얘기, 사는 이야기를 나눈다. 좋다. 역시 선배는 자주 만나서 얼굴 맞대고 얘기해야 한다. 소주 대여섯병이 금방 없어진다. 대운이의 특종 사진을 보려고 일찍 일어나 사무실로 간다. 사진 ‘췌인다’. 내일 중앙지를 도배할 거다.

오늘 노조 방문의 ‘야마’는 ‘노조원 의견 수렴’에서 ‘사건 몰고온 노조’로 돼버렸다. 이에 도선배가 한마디한다. “인유씨, 사건 몰고온 거보다는 특종 몰고온 거로 해줘”

정선배와 도선배는 “지사장과 광호, 여러 지사원들이 함께 자리하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큰 사건을 멋지게 해결하는 경기지사의 생생한 현장을 느낄수 있어서 오히려 좋았어”라는 격려를 남기고 택시에 몸을 싣는다. “이까이거 며 경기지사는 하도 많이 해봐서...”

오늘따라 더 성실하고 멋진 후배들, 이런 후배들을 잘 지휘하고 보듬어 주는 선배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멋져보인다. 역시 경기지사가 좋~~~~~타!



김인유 경기지사

사무실내 흡연 구태 여전

연합뉴스 본사 건물 전체가 금연건물로 지정된 지 이미 오래다. 그러나 회사 건물 내 흡연은 물론 심지어 사무실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 비흡연 직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과거 일반적으로 이뤄지던 사무실 내 흡연은 홍보와 의식개혁(?)으로 많이 개선된 상태

다. 그러나 사무실 밖으로 나가기 귀찮다는 이유에서, 또는 아무런 생각없이 습관적으로 사무실내에서 담배를 꺼내두는 직원들이 없지 않다.

주간 시간대에는 그나마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 탓인지 사무실 내 흡연이 덜한 상황이지만 사람이 뜸한 저녁시간대나 야간 시간대에는 곳곳에서 피어오르는 담배 연기를 쉽게 볼 수 있다.

또 사무실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더라도 엘리베이터 앞에서 흡연하는 경우 사무실 출입문을 통해 연기가 들어와 출입문 인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고통을 주기도 한다.

이에 대해 편집국의 한 조합원은 “폐와 기관지가 좋지 않아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과 함께 지내면 하루종일 머리가 아프다”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무실 내에서만이라도 흡연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